

할렐루야! 아름다운 5월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온 세상 하나님을 믿는 귀한 가정들을 주의 손길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경건으로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가정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지상대명령,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자!

로잔운동, 세계 선교 가정의 중요성과 동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1723년 독일,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파 중 하나인 모라비아 (Moravian)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마치 첫 성령 강림 (Pentecost) 때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부흥과 집중이 일어났다. 모라비아 공동체 전체가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는 100년 동안 지속됐다. 이 100년간의 기도 모임은 현대 선교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10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기도 운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놀랍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부흥은 먼저 어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아이들에게로 이어졌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어린이가 특별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 아이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The History of Revivals of Religion by William E Allen)."

믿는 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민족들을 위해 번갈아 가며 중보했다. 부모와 자식들은 함께 기도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세대에 걸쳐 전달되었다. 현대 선교 운동은 기도에도 근간을 두고 시작되었고, 여러 세대의 충실함으로 유지되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연계되고 동원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The Importance of Families in Global Missions).



지역 교회 교인은 섬길 때, 주어진대!

리더십저널, 톰 레이너 목사의 "교인" 이 된다는 성경적인 의미와 이를 실현하는 방법 소개

일반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적에, 교인 명부에 등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명단으로 이해한다면 분명 금세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인들을 "지체"라고 부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몸의 한 부분씩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명단을 넘어서서 몸의 일부와 같이 각자 맡은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인 명부에 등재가 된다는 것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살아나는 교회들 (Revived Churches)은 이러한 의미를 새가족에게 잘 전달하는 교회이다. 기계적인 명부 등재를 진행하지 않고, 명부 등재 전에 이 명부에 등록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새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교회들이다. 교인은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주고 남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교인 자격은 세속적인 멤버십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경적인 교인의 자격은 줄 때,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다.

<6면으로 계속>



발행인 겸 김성국 목사

2면



푸른초장 임영건 목사

4면



인터뷰 양영자 선교사

16면

<3면으로 계속>

하나님께서서는 선교를 마음에 품으시고 첫 번째 가정을 창조하셨다(창 1:27-28).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나중에는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정으로 채울 것을 계획하셨다. 각자의 시대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가정 말이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획을 세우시고, 이는 여러 세대를 걸쳐 성취되는 언약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전략, 즉 세대에 걸친 충실함을 보여주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8-19)



하나님의 전 세계적, 수 세기에 걸쳐 이어지는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부모로서 주어지는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축복이 되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대에 걸친 충실함을 담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다. 하나

님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혹은 양육해야) 했다(신 6:4-9, 시 78:1-7).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교회의 몸인 가정을 포함하여) 가정은 항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어떻게 우리 선교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경우 간과한다. 우리는 장기 그리고

단기 종사자, 아웃리치(outreach) 계획, 그리고 교회 개척과 선교로서의 사업과 같은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의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알게 하고, 열방에 축복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가?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 캠퍼스온라인 |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 Nouvelle Dental |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 T. 917-908-0075 |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 LA 호텔식 하숙 | LA GUEST HOUSE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 TEL. 213-663-9181 | 965 Fedora St. L.A., CA 90006 |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3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3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 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1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2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3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1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 2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 3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2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 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2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 4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 5 본인 재학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3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3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김득철 목사,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Rev. Tukyul Kim & The Kwonsa Boc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2	김득철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The Rev. Tukyul Kim's Family Spec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3	주형욱 목사,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Rev. Hyungok Joo, The Elder Chulsu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4	주요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00
5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Mink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6	왕수복 장로 장학생 1명 The Elder Soobok Wang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7	홍길두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8	김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9	신봉성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Kwonsa Bongssa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0	이범열 집사 기념 장학생 1명 The Deacon Bumyeu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1	New Life 랜스킨 한인 장로교회 장학생 1명 New Life Lansing K.P.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The Rev. Myungja Yue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00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3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3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발행인 칼럼

House냐, Home이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될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될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뿐이리’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 1823년도에 지은 이 ‘Home, Sweet Home’의 노랫말은 눈에 보이는 듯하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아름답다. 치열했던 미국의 남북전쟁터에서도 북군 군악대와 남군 군악대가 함께 이 곡을 연주할 때 병사들이 서로를 향한 충을 내려놓고 모두가 집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가정의 달이다. 모든 가정이 즐거운 home일까? 그렇지 않다. 가정이 단지 건물의 기능을 하는 집(house)에 머무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일하고 들어 오거나 학교 갔다 돌아와 쉬고, 먹고, 자기도 하지만 즐겁지는 않다. 우리가 떠난 한국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에게 가정은 즐거운 home이 아니라 거처인 house일 뿐이다. 가정을 떠받쳐주는 핵심 가치들인 신뢰와 존경과 사랑과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 싸우다가 지쳐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다가 급기야 이혼(離婚)에 이르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이미 가출했고 실제적으로 가출하는 일도 있다.

며칠 전 뉴욕 밀알 선교단 3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입구부터 예배의 자리까지 30년의 섬김과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안내받은 자리 옆에 엘렌이라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다. 시각장애인이었다.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 되어온 분이었고 했다. 그는 예배 중에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찬양을 드렸다. 가사 중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반복될 때 마음이 감동으로 저미었다. 그분 가족 이야기를 다룬 한국 KBS방송의 특집이 두 차례 있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와 찾아보았다. 2008년도 제작된 영상을 보면서 진정한 가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엘렌 자매를 입양한 니콜스씨 부부는 모두 시각장애인이었다. 자신들의 삶도 많이 불편할 텐데 한국에서 각각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네 명의 시각장애인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중의 한 명이 엘렌이었다. 그 특집 방송 중에 뉴저지 밀알 모임에서 어떻게 네 명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입양할 수 있었다”고 답하는 눈물겨운 장면이 있었다. 이 아이들이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지만 니콜스씨 부부의 자녀 사랑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 가정은 서로를 볼 수 없는 암흑의 자리, 잠시 거처의 역할만 해주는 house가 아니라 모두에게 진정한 home, sweet home 이었다.

가정이 home이 아니라 house인 곳에서 들리는 아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당신은 일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고벨료는 이 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군장교인 그가 얼마나 바빴겠는가. 그가 가족들을 다소 소홀히 돌본다고 해도 크게 비난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중심, 직장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하더니” (행 10:2) 그는 균형잡힌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무리 바빠도 ‘온 집안과 더불어’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에게 아내가 ‘당신은 일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하고 결혼한 거예요’라고 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정이 달 5월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나의 가정은 house인가 home인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처치리더스컴, 교역자의 사례비를 정할 때, 교회가 하는 흔한 실수 4가지 소개

교역자 사례비와 관련된 문제는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에 있어서 까다로운 주제 중 하나이다. 교회의 재정부나 당회는 교회 재정을 건전성 있게 운영하기 원하고, 교역자들도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교역자는 교회 안의 여러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역자가 사례비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한 교역자와 그 가정이 건강한 생활과

사역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역자의 사례비를 정할 때 교회가 흔히 하게 되는 4가지 실수를 소개한다.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면서 사례비를 책정한다면 교역자의 불필요한 관계적 긴장을 줄여줄 것이고, 보다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4 Mistakes Churches Make When Setting a Pastor's Salary).

1. 교역자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는 교역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교회는 그들의 교역자들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책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교역자들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어떤 교역자가 (대부분의 훌륭한 교역자들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사례비 부족함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생활이 괜찮은 것은 아니다. 그는 낙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과 불화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교역자가 충분한 사례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교역자 개인과 가정, 그리고 그의 사역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

교회의 사례비 책정부는는 교역자들을 관대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 교역자들의 사역 목적이 돈은 아니다. 간혹 비싼 정장과 개인 비행기를 가진 부자 설교자들이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문 일이다. 이들은 아주 예외적이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것이고,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그렇지 않다.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교회의 재정과 신용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더 문제가 되는 것



은 사례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례비를 책정할 때 교역자의 사역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의 규모, 교역자의 학력과 경력,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생활비, 매년 몰가 상승률, 인근 지역의 다른 교역자들의 사례비, 그리고 비슷한 교회 규모와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의 사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무작정 최저기준에 맞추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2. 담임 교역자는 충분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경우

담임 교역자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주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것이고, 다른 유급 사역자도 함께 사역하고 있을 것이다. 담임 교역자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처럼, 그의 리더십에 함께하는 다른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사례비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의 무게는 담임 교역자가 가장 무겁게 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담임 교역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임 교역자에게만 충분한 사례비가 주어진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청년부 사역, 교육부 사역, 예배 인도, 행정 등 대부분의 사역에서,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책정된 사례비에 비해 (사회의 시급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사역자의 개인적 영역과 사역적 영역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사역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열정과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정당한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고, 인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애틀 온누리교회는 1994년 미국 시애틀에 세워진 한인 교회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민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끌어 주실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청빙요건: 장로교의 교리와 규례를 준수하며,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기에 결격사항이 없는 분으로서, 영혼 구원과 목양 및 목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 (소정양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웹사이트(http://www.seattleonnuri.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문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대명령,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자.

우리가 선교 전략과 수단에 아이들과 가정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요소가 아닌 단순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긴다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정과 자녀들의 역할을 간과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추수할 거리가 많은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잃게 된다. 당신과 나를 채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채워진 젊은 믿음의 세대가 어른이 될 때까지 미전도 종족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13세면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호프(Hope)와 같은 아이들을 놓치게 된다. 9살 때 그녀는 몽골을 위해 매일 기도했고 2년 후에는 몽골에서 처음으로 500명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몽골을 위한 소망"(Hope for Mongolia)이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문화에 가정이 동원되었을 때의 영향력을 잃게 된다. 교회 안에서 가족 전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 안의 자녀들이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교회의 문화는 바뀌기 시작한다. 뒷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를 소수의 전문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선교가 우리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가족들의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케냐 출신의 어머니인 도렌(Doreen)이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이 무엇으로 부터 구원받았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변화는 부모들과 양육자들이 요한계시록 7:9을 통해 알 수 있는 집에서의 제자도의 강력한 역할에 대해 확고하게 믿고 이에 따라 살 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 전략에 가정을 중심 초점으로 두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 이를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부모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라.

가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선교를 위해 주신 역할이 있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열방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부모와 양육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전하지 못한다. 또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그들 삶의 시기와 관련이 없거나 연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 역시 선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의 삶 속 신앙의 성경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전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가정을 선교에 동원하는 근간이 된다.

2. 부모와 양육자들이 성경적 제자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모와 양육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지역 교회가 부모와 양육자들이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부모와 양육자들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자도의 형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양육하는 부모들의 수고에 대해 격려하고, 그들이 특정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

3. 지상대위임령을 완수해나가는 어린이의 역할을 지지하라.

당신 혹은 당신의 문화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솔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우리는 그들이 어릴 때에도 그들을 교회의 일부 혹은 미래의 교회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른을 통해 일하시듯 아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 속 많은 어린이가 하나님의 사역에 전략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어린 소녀인 미리암은 나일강을 통해 떠내려온 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켜보고 보호했다(출 2:3-8). 어린 소년인 사무엘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삼상 3:1-10). 나야만의 종인 한 소녀는 자신을 잡아온 문둥병에 걸린 우상 숭배자에게 동정심을 느꼈다(왕하 5:1-3).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임성하신 이후, 성전의 아이들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마 21:15-16).

성경 속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아이들이 어릴

때 선교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단 거적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가정이 지금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선교를 위해 준비된 제자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와 기관들은 아이들을 세워주고 그들 안에 지상대위임령이 깨달아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섬김 기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의사 결정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초대해야 한다.

4.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정의 역할을 귀히 여기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떠날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가족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선교를 위해 떠나는 이들은 다른 문화를 접하며 어려움을 겪고, 곤경에 처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축하하면서도, 잘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선교사가 떠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족이 그들을 보내는 것에 함께해야 한다.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떠나겠는가?'(롬 10:15).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지기를 위해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의 수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가족들, 즉 보내는 이들을 응원하라. 9살 소녀 호프와 이 아이의 부모처럼 신실한 중보로 통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을 응원하라. 의도적으로 자신 주변의 피난민, 국제 학생, 사업가와 같이 열방을 이루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을 사랑하는 '환영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이 열방을 위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동원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라.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들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의 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믿는 모든 이가 필요하다.

가정을 동원하는 일은 마르톤과 같다. 그것은 가정의 삶의 중심, 즉 매우 신성한 자리를 뚫고 들어가야 하며, 18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또 끈기 있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열매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매우 놀랍다.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믿는 모든 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부모, 양육자,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포함된다.

시론

결레 성자 해석 손정도 목사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손원일 제독'을 아시나요? 초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지내시며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셨습니다. 그러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도 아시나요? '결레 성자'로 불리웠던 '해석 손정도 목사'입니다. 오늘 아들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정도 목사는 구한말 과거시험을 보러가다 전도를 받고 갖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후 숭실학교를 거쳐 감리교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북경 선교사, 봉천 선교사, 하얼빈 선교사로 일하면서 신민회 조성환 선생을 통해 안창호 선생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후 가짜 암살사건의 주모자로 고문을 당하고 진도 유배를 거쳐 동대문교회와 정동교회의 담임목사가 됩니다. 동대문교회를 담임

하며 종로서 사건의 김상옥 의사에게 그리고 정동교회를 담임하며 '3.1 만세운동사건'의 유관순 열사 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3.1운동 때에는 이승훈 선생의 권유로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고종의 밀사로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사했고, 그뒤 상해 임시정부 탄생의 주역으로서 의정원장을 거쳐 상해 한인교회, 길림 신철교회, 액목현교회를 담임자로 섬겼습니다. 당시 상해 임정을 떠나 길림으로 떠난 손정도 목사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생애 마지막으 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호조운동'이었습니다. '호조(互助)'란 말 그대로 '서로 돕는 자급자족의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인 '농민호조사'를 설립했고 '만주 역목현' 일대에 대규모 땅까지 매입하여 이상촌 건설에 열정을 쏟은 결과 100여체의 농민호조가 입주했지만, 일제의 방해공작과 만주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일제의 고문 후유증의 재발과 병마에 시달리다 1931년 당시 49세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채 망명지에서 눈을 감습니다. 일제는 그가 순국하자 '드디어 죽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의 유해는 만주 벌판 어린가로 사라졌지만, 후대들은 그곳의 흙을 가져다 국립현충원에 '가묘'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운동가였던 그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목회적 사람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안중근 선생이 옥고를 치루고 사형을 당하자 부인과 자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고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주변을 늘 항상 돌아보며 함께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15세 소년 김성주를 만주 길림에서 3년간 돌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어린 소년 김성주는 후에 북한의 김일성이 되었기에 이것이 해방 후 그를 우리 역사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통해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앞서 말한 '김상옥 선생'과 '유관순 열사' 외에 호형호제한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조소앙, 이승만, 김구, 여운형, 조병옥 선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모두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의 '항일력'과 '형제애'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의 '신앙과 사상'이었고 이를 직접 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단이 아니라 결레의 삶을 살겠다.'며 안락과 부귀를 누리는 비단의 삶을 거부하고 고난과 희생을 자처한 삶을 살았던 해석 손정도 목사! 그는 이렇게 자신을 가르켜 항상 '결레'라 칭했습니다. '결레'는 자신의 몸으로 항상 더러운 곳을 훑쳐 닦아냅니다. 그 일의 결과로 자신은 늘 더러워집니다.

결레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 결레가 되기 위해 자신을 늘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 결레처럼 임무를 마치면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는 그것을 한마디로 '결레정신'이라 불렀고 이것이 기독교신앙의 중심인 '생명나눔'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손정도 목사 그는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인이 된 이후부터 평생을 대접받기 보다 대접하며 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주변 이웃들을 원손이 하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모르게 '결레신앙'으로 섬기고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9년 KBS 성탄특집 '결레성자 손정도'가 방영된 후부터였습니다. 당시 '결레 성자 손정도'를 제작 방영한 방송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빛이 다시 돌아오는 광복의 날을 확신할수 없었던 암흑의 시대. 가장 낮고 그늘진 자리에서 오욕의 어두움을 닦고 또 닦았던 사람. 그리하여 독립이라는 희망을 별처럼 걸어 놓았던 사람 ... 종락 ... 비단이 아니라 결레의 삶을 선택한 해석 손정도 목사(1882-1931)의 삶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사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그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명예와 재물과 권력에 사로잡혀 헤쳐는 안될 일들도 서슴없이 해치우고 대접 받기를 즐기며 비단길만을 걸으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정말 배우고 따라 실천해야만 하는 '해석 손정도 목사의 결레 신앙'은 바로 '예수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결레로 살았지만, 그는 결코 결레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탐욕을 닦아냈고 예수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진정한 '예수제자'였습니다. '결레 성자 해석 손정도 목사!'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교회가 다시 한번 '비단이 아니라 결레'가 되기를 그리고 이를 몸으로 실천하기를 그래서 세상의 지탄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하며 희망해 봅니다.

pastor.eun@gmail.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커피 한 잔에 담긴 신학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매일 2-3잔의 따끈한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십니다. 여름이 되면 '커피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콜드 브루(Cold Brew) 더치 커피를 내려 마시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커피 한 잔에도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매일 2-3잔의 따끈한 핸드 드립 커피를 마십니다. 여름이 되면 '커피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콜드 브루(Cold Brew) 더치 커피를 내려 마시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커피 한 잔에도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통 커피는 흑색이고, 크림은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커피에 크림을 섞어도 그 커피를 흑백(Black and White)커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크림과 커피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커피와 크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속에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마귀 권세를 이길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양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내가 죽는 회생의 길입니다. 내 뜻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길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택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처럼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결단의 길입니다. 나에게 대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죄 사함도, 하나님의 화목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잔의 커피 안에도 신앙이 담겨있듯이,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신앙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이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신학(?)입니다. 오늘 커피의 맛과 향을 음미하실 때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신학도 한번 음미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푸/른/초/장

임영건 목사

(열린교회)



요나가 니스웨 성읍에서 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앞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선교 사역을 이루었으면 빨리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 갈 일이지 왜 그곳에 초막까지 짓고 성읍을 바라보고 있을까?

도무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니스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니스웨 백성들도 그랬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벌을 받아 멸망을 당해 버려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도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을 정도로 악독하였다(요나 1:2). 이럴 정도로 타락하거나 악독한 도시가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해 버렸다. 그런데 니스웨는 심판을 커녕 요나가 간 이후 변화되어 치안과 공의와 정의에 있어 최고의 도시로 변화되어 버렸다.

니스웨는 지극히 큰 도시이자 가장 강력한 국가 앗수르의 수도였다. 사울을 걸어야 가로질러 정도의 도시였으니 직경이 약 100Km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다. 가서 "사십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외치기 시작하니 하루 만에 그만뒀 버렸다.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치자마자 바람에 불이 불어 번지듯이 자기들이 서로 알려져 도시 전체가 회개해서 난리가 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일은 유래가 없었다. 아니, 임금까지 아예 조서를 내려 사람과 짐승까지 굶은 배움을 입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기한이 있는 금식이었을까? 아니다. 무기한 금식이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금식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렇게 회개하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 살려 주실는지 목숨을 건 요행을 바란 금식이었다. 요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지만 니스웨 사람

들이 진정 회개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던 말인가. 설사 진정 회개했다 하더라도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 금방 다시 옛날 습성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지켜보겠다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복음을 받고 회개한 그들에게 심판의 손길을 기다리며 니스웨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요나의 태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작 심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요나가 아닌가? 정말 변화되지 않아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니스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우를 변변 못하는 자'로 칭하셨다. 불순종하더라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된 자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살며 선포하며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들이 한 번도 경침을 받은 사람이다. 평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다.

니스웨에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그럴까? 살고 뼈까지 불에 타고 녹아지는 지옥의 고통같은 뱃속의 고통을 삼 일간 겪게 되자 그때는 자아가 다 무너졌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배

후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요나 2:8, 9)." 극심한 고통에 영혼이 가뭇가물하도록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불뼉이 있던 것들

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다. 자아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자리에는 요나의 저런(요나 2:8,9)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 자리였다. 그럴 때 지옥의 뱃속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작심삼일이라든가? 원수 같은

의 요청에 어지간한 분 같은 관계가 여기서 끊어 났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종은 어느 주인이라도 버려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속에 요나가 빠져 바다 바닥에 높은 수압에 눌려 있음에도 죽지 않게 하셨다. 그를 삼키고 니스웨로 항해할 큰 물고기까지 예비해서 회개하자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셨다. 요나를 위한 완벽한 은혜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준비해 두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회개하자 분해 죽을 것 같은 요나, 기도하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이

“요나의 변화”

요나 4:1-11

니스웨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면서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이 마음이 다 증발되어 버렸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더니 금방 토한 것을 다시 주워 삼킨 모습을 보게 된다. 남의 모습은 잘 바라보지만 나의 모습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다. 요나의 잘 변화되지 않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이켜 버린 엄청난 역사... 이것은 역대 선교사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둘째는, 그렇게 강력한 요나를 왜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고자 하셨을까? 그런 일꾼은 마땅히 버려야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력한 요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같이 일하고자 하셨을까?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을 터인데... 둘째는, 요나가 불순종으로 들어갔던 스올의 뱃속은 누구라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순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이켜 버린 엄청난 역사... 이것은 역대 선교사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둘째는, 그렇게 강력한 요나를 왜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고자 하셨을까? 그런 일꾼은 마땅히 버려야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력한 요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같이 일하고자 하셨을까?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을 터인데... 둘째는, 요나가 불순종으로 들어갔던 스올의 뱃속은 누구라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순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 4:2)"이시다.

가서 말씀 전하라는 니스웨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원들이 한 번도 경침하지 못한 절망적인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선장을 보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깨우셨다. 그레도 안 되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뽀기를 하게 만들고 요나가 뽀뽀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그레도 회개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보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즉 '회개하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지르게 하셨다. "네 생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신 것은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개척지심이었다. 회개는 커녕 차라리 나를 풍랑 속에 던져 죽여 달라는 요나

간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다. 아무리 덩치 큰 생선도 꺾국이 되어 버리는 장소다. 뼈까지 녹여 버리는 강산이 눈과 코 가릴 것 없이 밀고 들어오는 장소다. 생선 썩는 지독한 냄새를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원지다. 물고기가 제멋대로 헤엄치기에 심한 풍랑에 뱃머리를 할 때의 모든 고통이 다 임하는 장소다. 토하고 싸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순간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산지옥이다. 말 그대로 스올의 뱃속이다. 니스웨로 가는 배 앞에 요나를 토해 내어 배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물고기 배속에 삼일을 가뭇 두었다가 니스웨 물에 토해 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읽고 있는 '책'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 하 -

지난 1월에 알려 드렸던 포르노 수준의 책들이 공립학교 도서관과 자녀들이 자주 가는 동네 도서관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을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공립학교 도서관과 동네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이 여전히 있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녀들의 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란한 성개념의 원흉인 책들은 내용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올 그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 1월에 알려드렸던 Gender Queer 책 내용은 도저히 너무나 끔찍해서 기사나 저의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학교 도서관이라면 안전한 것이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하셔서 사진들을 몇 개 공유한 것을 여기에 나눕니다. 보시고 각자 위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좀 가려서 사진을 올립니다만, 어떤 것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보는데, 어른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도서관에 따라서, 어떤곳은, 아이들에게 "if you want books with more graphical scenes, just let me know"라고 11세 학생에게 이야기한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다행히 그 학교 학교에 아버지가 직접 이슈를 문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문제의 책 제목은 "Let's Talk About It"입니다.

사진1에 보이는, 매튜 놀런 (Matthew Nolan)과 에리카 모엔 (Erika Moen)이 저자인 이 책 (Let's Talk about it)은 '섹스와 성적 관계, 인간이 되는 과정에 대한 십대 가이드'라고 알려졌으며 성인이 보기에 도도한 사진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Queer Gender, Lawn Boy, Class Act 등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흡사하거나 더 심한 그림들입니다.

만약 어른이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읽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번태'라고 생각할 만한 책인데, 그런 책을 14살에서 17살까지 어린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인가요? 더 나아가, 이런 교육을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아이들을 세뇌하는데 "교육"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태적인

성관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인권운동권의 공립학교에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교사들은 "Let's Talk About It"과 같은 책은, 십대 학생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갖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봐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우리의 몸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며 이 책이 나이에 맞지 않은 아이도 있겠지만 그런 그 아이의 성숙도의 문제이지 이 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무책임한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놀랍게도 2021년 '최고의 청소년 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튜 놀런 (Matthew Nolan)과 에리카 모엔 (Erika Moen)인데 이들이 집필한 다른 모든 책들도 그 내용은 온통 섹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리카는 본인을 cisgender(생물학적 성별과 스스로의 정체성이 동일하다)라고 정의하는 사람 - 쉽게 설명하면 보통 일반인이 갖고 있는 성별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이라고 밝혔고, 만화책 제작자이며 오래전에 있는 Telescope studio에서 18년 동안 웹코믹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Oh Joy Sex Toy'라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10년 동안 작업한 4권의 만화 모음집을 출판했고 여러 가지 어른 섹스 장난감을 평가 (review)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이런 책들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책들이 필요



사진1

한가요?? 우리 자녀들의 정서에 이런 책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25년 이상 수천 명을 상담해왔습니다. 부부, 청년, 목회자, 특별히 십대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들의 두뇌에 뿌리내린 거짓된 성적 이미지들은 마치 성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책들의 이미지는 아이들에게 떨어뜨려 내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성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그들의 노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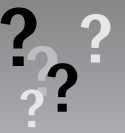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책은 도서관뿐 아니라, Amazon, Walmart, eBay, Kindle store, Barnes & Noble, Kobo, Google Play Books, BookOutlet, Bulk Bookstore, Thriftbooks, Abebook 등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구글에서 책 이름으로 찾으면 미국 어디든 가까운 Publicity 도서관에서 비치되어 있어 아주 쉽게 대여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더 놀랍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모들이 오히려 이 책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현재 63세로 사업을 하는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미국에 와서 수십 년간 비즈니스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최근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죽음과 저의 남은 인생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토렌스에서 장 집사

죽음이 옴을 기억하라 믿음의 작품을 남기라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 얻는 교훈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머지않은 시기에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할 때 전차 뒤에 탑승한 사람이 장군에게 이 말을 새기도록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기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딸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딸과 여친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켄은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J. I. Packer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속에 살고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웨장암으로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나는 성공의 상징이다. 그러나 죽음이 닥쳐오는 현실 앞에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쉬지 않고 재물만 추구하는 사람은 나같은 뒤떨린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어느 정도의 부를 얻었다면 그다음부터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부를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뿐이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장막의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을 소중히 여겨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해주라. 그리고 타인에게도 잘 대해 주라."

둘째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make a works of Faith) LA에서 북쪽으로 7시간 정도 올라가면 관광명소인 요세미티가 나옵니다. 그곳을 가면 숲과 나무와 흐르는 물과 계곡과 산과 바위, 기암절벽 폭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 줍니다. 록키산맥을 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구원의 작품을 남기셨고 사도바울은 1,2,3차 선교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작품을 남겼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믿음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의 작품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순홍민은 축구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수 많은 한인 골퍼들도 우승을 차지해 한국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길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사십시오.

1986-2023 대학 설립 37주년

Global Leadership Seminar & 2023 Commencement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 및 양성과 세계선교를 위해 1986년도에 설립한 Midwest University 는 개교 37주년을 맞이하여 전문적이며 성공적인 강사를 초청하여 Global Leadership 세미나를 개설하며 전세계 리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박동선 회장 파킹턴 인터내셔널 회장 세계 최고의 전설적인 협상가이며 현 한국의 실제 리더들의 모범인 정산포럼 회장, 105개국 주한 대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부임 조부터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



Dr. Bill Federer American Minute 설립자, 역사학자, 저술가(100 여권), Midwest 리더십박사, 미국 건국과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 리더십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양충길 목사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단을 탈퇴하며 목사 리더십 결단력에 강도와 도전을 준 뉴저지 펠그림 선교교회 담임목사



권준 목사 새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며 가장 젊고 건강한 목회를 하며 미 서부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Dr. James Song 총장 Midwest University 설립자, 총장 MIRI 연구재단 이사장 Global Leadership Institute

Global Leadership Seminar May 15(Mon) - 18(Thu), 2023 학위수여식 May 18, 2023. 10:00 am IEA 목사안수식 May 18, 2023. 1:30 pm

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www.midwest.edu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배로운교회)

“지성과 감정의 균형”

머리로 상징되는 지성과 가슴으로 상징되는 감정이 서로 하나로 연합될 수만 있다면 놀라운 과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 지성과

감정이 분리된다면 온전한 지성이라 할 수 없고 온전한 감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았던 알로에가 겨우내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통통

해졌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면 잘 자랍니다. 즉 식물은 수분 섭취와 성장이 비례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성령

으로 충만히 지배를 받아 진리의 지식을 흡수하면 그 결과 우리의 감정에 성령이 불리일 으켜 주시는 감격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지성은 성령이 불리일으키는 감격의 감정을 찾아오고 성령이 불리일으키는 감격의 감정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지성을 전제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지성과 온전한 감격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성령충만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충만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팽개치고 그 장난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한때는 성령

충만을 절실히 구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느라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 나서기는 했는데 지성과 감정이 연결되지 않는 불균형 현상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서 가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하시면서 그것이 곧 앞으로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히 지배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

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이 동시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게서도 발원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계시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머리의 지성과 가슴의 감정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며 균형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미국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서 출발”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상·하원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근대화를 이끈 미국 선교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됐다. 지난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다. 교계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 대해 이례적이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창기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을 언급했다. 호러스 언더우드(1859~1916)와 헨리 아펜젤러(1858~1902) 선교사는 한국에 개신교를 전파한 주인공들이다. 메리 스크랜턴(1832~1909)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여성 선교사로 이화학당(이화여대 전신)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첫 여성병원을 만든 로제타 홀(1865~1951) 선교사는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들 선교사에 대해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전에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연설한 전직 대

통령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5명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 의회 연설에서 기독교의 중요성과 역할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면예배 좋아”美 기독교인 10명 중 6명 온라인 예배 실망

코로나 팬데믹이 온라인 예배의 일상화를 불러왔지만 기독교인 상당수는 대면예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도 간 정서적 유대 관계나 교회의 노령층 사역, 공동체성 함양 등에 있어서 대면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기독교 조사단체인 바나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미국 기독교인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 정도(59%)가 온라인예배에 대해 ‘실망스럽다’ ‘단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긍정적(흥미롭거나 열정적인)’이라고 답한 부류는 11%에 그쳤다. 바꿔 말하면 대면예배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특히 정서적 지원(71%) 노인사역(70%) 공동체 형성(68%·중복응답) 등의 분야에서 대면 교회 공동체 활동이 온라인 교회보다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미 개신교 담임목사의 96%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예배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내 대면예배에 대한 갈증은 현지 한인 디아스포라 예배 공동체에서도 드러난다. 목회데이 터연구소가 올 초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 한인교회 교인 10명 중 7명 정도(68%)는 ‘반드시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팬데

믹 이후 교회가 부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은 출석 교회 교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인 수가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7만2000원 독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 첫날 300만장 팔렸다

월 4990로(약 7만2000원)만으로 독일 전국의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별 요금제에 따라 운영해온 근거리 대중교통을 전국에서 통일된 가격으로 탑승할 수 있는 것이다. 1일 독일 교통회사연합(VDV)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이칠란트 티켓’ 하나로 전국의 근거리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 티켓은 지난해 6~8월 5200만장이 팔리는 유례없는 성과를 낸 9유로(1만3000원) 티켓의 후속 모델이다. 이미 티켓을 구매해 사용하는 이들은 300만명에 달한다.



이날 티켓을 사려는 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독일 철도 서버가 다운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자체별 월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아 온 신규고객은 75만여명이다. 많은 이들이 값싼 도이칠란트 티켓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도이칠란트 티켓 사용이 개시된 이날 티켓 구매자가 몰리면서 독일 철도 서버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독일 철도는 “현재 너무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티켓 구매 시스템으로 접속하고 있다”며 “추후 다시 시도해달라”고 공지했다. 수도 베를린의 교통공사 고객센터에는 온라인 구매 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티켓을 사지 못한 고객들의 줄이 수백명씩 늘어났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도이칠란트 티켓으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관심에 감사한다. 근거리 교통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쉽고 비싸지 않은 제안으로 우리의 기후 목표 달성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홍콩 대표 연예인, 수상 소감서 ‘신앙고백’으로 주목받아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가수인 정수원(정수문)씨가 수상 소감으로 한 신앙고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홍콩에서 열린 ‘제41회 홍콩 영화상’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과 영화 OST 부문상을 받았다. 정씨는 “오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며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과정에서 겸손하고 운운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멋진 소감이다” “그녀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8일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정씨에 대해 ‘자신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이라 분석했다. 정씨는 1990년대를 풍미한 ‘Chotto 等等’ 곡을 내세우며 당시 홍콩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미스 유(Miss You) ‘캔트 렛 유 고’(Can't Let You Go) ‘등의 곡들을 발표하며 음반 판매량 10만 장 이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영화 ‘백본백각각’ ‘니딩 유: 고남과녀’의 주연을 맡아 성공하면서 인기는 식을 날이 없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알 수 없는 공포와 슬픔에 잠겨 무력함을 느꼈으나 강한 척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3년간 잠적했으며 당시 “우울증으로 한 달간 거울을 보지 않았고 7일은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정씨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를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 2007년 교회에 나가 세례를 받았다.

정씨는 “하나님은 제게 약 1000일이란 긴 시간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게 했다”며 “성공과 돈이 내 삶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삶은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을 찾았다”고 당시 세례 소감을 전했다. 그는 2009년 기독교 색채를 담은 가스펠 앨범 ‘페이 스’(Faith)를 발표했고, 월드비전과 국경없는의사회 등 자선단체 홍보대사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역 교회 교인은 섬길 때...

(1면에서 계속)

톰 레이너 목사는 현재 살아나는 교회들을 전격적으로 방문, 분석하면서, 왜 다시 살아나는지를 철저하게 해부했다. 그 결과, 섬길 때 교인이 된다는 의미를 새가족 소그룹에서 익히는 교회들이 살아난다는 진실을 발견했다(Anatomy of Revived Church).

새가족에게는 성경적인 교인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새가족 소그룹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새가족 소그룹 과정을 거칠 때, 남들을 섬길 준비가 된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준비가 된 새가족이 정착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

새가족 소그룹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교육은 세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는 교회의 신념과 교리, 교회의 공동체 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명이다. 교인들의 현재 생활 방식이 어떠한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목표에 대한 ‘기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려주어야 한다. 교인 개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먼저 들은 새가족이 교회에 남는다는 것은 그 기대사항에 압묵적인 동의를 하게 된 것이며, 그들은 그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사항은 종종 ‘사명 선언문’의 형태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전달된다.

셋째, 동역이다. ‘동화’과정의 필요하다. 어떻게 새가족들이 기존 교인들과 동화될 수 있을까? 바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가족들이 투입될 수 있는 간단한 봉사와 사역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가족 소그룹을 지나 기존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게 하는 것 또한 정식 교인이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사역과 기존 소그룹에 동시에 참여하게

할 때, 새가족은 교회에 동화될 수 있다.

당신 교회의 몇주간의 새가족 교육 단계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사명선언과 동역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 살펴보고, 살아나는 교회를 위한 변화를 속히 진행하시길 소망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

(2면에서 계속)

3. ‘시무 기간’만으로 교역자의 사례비를 인상하는 경우

시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례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교역자가 신실하게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를 지속할 때, 그가 교회와 사회에 기여한 바를 반영해서 적절한 사례비를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오랫동안 시무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례비를 올

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역자가 사례비가 보통의 생활비 수준을 많이 넘어선 후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과정에서 교회의 재정 상황은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의 사역과 리더십의 측면에서, 교역자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가?

사례비를 인상 받을 자격이 있고 이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가? 담임 교역자의 사례비를 특정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다른 이들의 사례비 인상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

는가? 당신의 교회가 다른 사역자들을 뽑을 계획이 있는가? 교회의 수입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때때로 교회의 재정은 더 시급한 예산이나 인력 충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비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교역자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처럼,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의 보상이나 복직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비 정도를 넘어서 사례비를 올리는 것이 현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

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특히, 교회를 수년간 잘 섬긴 교역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앞으로도 그가 그 교회 섬기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직무기술서 또는 사역기술서가 없는 경우

많은 경우, 사례비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사역과 보상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곤 한다. 사역자들을 위한 명확하고 정확한 직무기술서 또는 사역기술서는 이러한 사례비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사역자들의 수와 교인들의 규모, 실제 사역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 교역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교역자가 하는 모든 일을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실제 그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 사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직무기술서 또는 사역기술서는 교역자의 공정한 사례비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교역자와 사례비 책정부서 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상호 섬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상호 관용과 상호 섬김이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역자의 사례비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역자와 교회 운영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여러 교역자들과 직원들은 교회로 그 사명에 맞게 이끌어 나가도록 힘쓰고 있다. 그의 섬김에 맞는 행복한 생활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VIII. 구원론 (Soteriology 혹은 The Doctrine of Salvation) (3)

G.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믿는자로 남아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36번은 성도의 견인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나오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They shall never perish, 헬라어 “μη ἀπόλωνται” 이 단어는 요 3:16에 사용된 말과 같다. 헬라어 부정과거 가정법의 구 (The Greek construction: οὐ μή plus aorist subjunctive)인데 특별히 강조 할때 (emphatic) 사용된다. “결코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한다 (they shall certainly never perish forever).” 진정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토록 결코 구원을 잃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요 3:16 동일한 의미).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는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보았다.

“εδοξασεν” / “He glorified” 과거 (aorist) 시제를 사용했다 (원형은 δοξάζω). 현재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영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묘사하며 이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전제 로한다.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말씀이다.

(벤전 1: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ἐν δυνάμει Θεοῦ φρουρουμένους (by the power of God being guarded), 여기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1) 벗어나려는 것을 보호함; 2)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보호하시며, 그리고 나아가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에 일어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그리고 성화의 모든 복을 마지막에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나 알미니안과 같은 자들은 한번 구원받은 자들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부정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성구들을 몇 가지 살펴 보겠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교회 원로)

(히 6:4-6)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농사짓는 일에 비유한다.

(히 6:7-8)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가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 6:4-6절에 묘사된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땅, 곧 심판을 받는 땅에 비유되었다.

여기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지만 이 비침은 단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이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참된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말은 아니다.

“빛을 받고 (having been enlightened), φωτισθέντας (원형 φωτιζω) 구원에 관한 배움 (빛) 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배움을 말하는 의미로 “한 번 빛을 받고” 사용된다.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서 빛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

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복음을 한 두번 들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한 번”이라는 헬라어는 ἅπαξ (once) 인데, 이 말은 빌 4:16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두번 선물을 보냈다고 했을 때도 사용했다. 그리고 히 9:7에서 지성소에서 일년에 한번 들어갔다고 할 때 사용된 말이다. 이 말은 단순히 그저 한 두번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simply that it happened once).

이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본 자들이다. “맛보았다”는 말은 한번 맛을 보고 취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혹은 맛본 것을 취할 수도 있다.

“맛보다,” γευσαμένους (having tasted) 는 마 27:34에서도 사용되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

님과 제자들과 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닌 단순히 고기잡이 동료들을 말한다. (히 6:4-6)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의미는 그들의 삶이 성령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했거나 그들이 중생을 체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눅 5:7의 고기잡던 동료들이 제자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히 6:4-6)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된”, μετόχους (partakers), 사람은 교회 일에 동참했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마 7:22-23)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히 6: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앞에 언급된 것 (6:4-5)들이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 보는 것이다. 앞에 언급된 것들 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들이다. ἐχόμενα (accompanying) σωτηρίας (salvation); ἐχόμενα는 ἔχω의 중간태 분사 (middle participle of ἔχω) 으로서 “구원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 (things also having salvation). 이것은 6:4-6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영원한 것들이다.

구원에 속한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은 히 6:9-12까지 적고 있다.

6:9-1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히 6:4-6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이들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불사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생활 속에 6:9-12에서 나타난 열매를 맺게 된다.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는 생활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

(마 7:15-20)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음 호에 계속해서 출 32: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리고 사울의 경우를 살펴 보겠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생예배: 오후 2:00 글로벌학생예배: 오후 7:30 세브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브기도: 오전 9:30(월-토) Tel: (323) 813-4499, www.nscg.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오후 7:30 세브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0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브기도: 화-토 6:00(월-토) 글로벌학생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고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브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브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글로벌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2:00(대학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m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사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브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세계선교회</h4> <p>담임목사: 김장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오후 7:30(월-토) 세브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827, www.wmca.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4>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실비치 Clubhouse 3 room 1(1F)</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브기도: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가족원</h4>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공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영성성장 2. 영성사역 3. 영성교육 4. 영성상담 5. 영성연구 6. 영성연구 7. 영성연구 8. 영성연구 9. 영성연구 10. 영성연구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영성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ipsisfamily.org, Tel: (562) 8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글로벌예배: 오후 8:00 세브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후 2:00(대학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 446-6200, www.grocei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브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브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세브기도: 저녁 8:00 세브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브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세브기도: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하늘사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세브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수요일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8장 회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2)

고리 6: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왜 죽으려 하느냐고 물으시나.

* 고리 6의 적용

1)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너는 죽으려고 하느냐'고 당신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기나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심을 찬성하고, 당신은 그것을 반대할 때,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에 회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개는 반드시 총체적 변화이어야 하며,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며 거듭나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새사람이 되지 않고도 옛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된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을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2) 아무런 핑계도 달 수 없게 하는 두 가지 일반적

근거 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다

진리와 이성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빛이 태양과 적대적일 수 없다. 어떤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지식이라도 하나님께로 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심히 어려서는 두더지 같은 자가 감히 자기의 창조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발견되는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이며, 가장 미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나)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주인의 법을 어기고, 영광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사신 주인을 버린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멸망시킬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질문에 주목하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영원한 죽음이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지옥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멸망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독사를 사랑하는지를 물어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좋은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영원에 관한 문제는 비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세상이 있는 어떤 것도, 비록 그것이 생명이나, 왕관이나 왕국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보살할 수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 지금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회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

만일 마귀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그들을 하나님과 영광에서 떼어 놓도록 유혹하기 위해 술이나, 창녀나, 친구들이나, 운동경기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그들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그것들은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들은 이러한 제안을 미워하며 멸시하면서 거절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천국이 열리도록 왜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지금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천국을 버린 것은 미친 거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지옥 불을 끄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은 쾌락이나 부

나 명어나 호의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회개하여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감히 밤에 조용히 잠자리에 들 수가 없을 것이다.

* 천국을 버리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핑계도 달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탈 때까지 손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불태워지게 하거나, 채찍과 고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것로부터 구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36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간청한다. 여러분은 자신을 멸망시킬 아무런 핑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 것을 거절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해보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처럼 거룩하게 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뜨거운 지옥이 여러분에게는 뜨겁지 않을 까?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만큼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려 하는가?

(다음 호에는 회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변명 1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너그러운 마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 중의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이다. 솟구치는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고 자아를 맡음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때가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것 같다. 나를 애매히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일차적인 감정은 분노일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저 사람이 정말 저러 줄 몰랐다면 배신감을 느끼며 속상해한다. 그때 자아는 내 감정대로 살라고 요즈음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며 우리의 마음을 총동질한다.

대부분 사람은 총동질하는 그 마음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다. 나의 화를 돋운 사람을 찾아가 따지거나 혹은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를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며 복수를 한다. 이쯤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된다. 그 사람이 풀 보기 싫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관계에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묵화하는 남편을 도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일 년 내내 눈물을 흘렸던 해도 있었고 묵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온몸에 발진이 생긴 일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다. 사명자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결코 완수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배운 너무도 값진 시간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에 자아를 복종시키며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닐까? 죄성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자아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성경의 윤리적 교훈은 한 차원 높은 삶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무언의 의침이다. 즐거울 때도 마음이 힘이 들 때도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쏫불을 둔 것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쉬운 성경, 잠언 25:21-22).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해외 교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Includes a compass and map graphic.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김관교회, 든든한교회, 새이덴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은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가 막힌 여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느 청상과부인 여인은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총명하고 공부도 잘하여 고생을 감당 하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나중 그 아들은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는데 공부를 마친 아들은 미국에 정착하여 매달 어머니에

게 수표를 보내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로하신 어머니는 생활을 위한 수고가 지나치고 영양실조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여인의 방에 들어가 보니 방벽에 미국서 아들이 보낸 일정 금액의 수표가 가득 붙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글을 모르시는 그 할머니는 아들이 보낸 수표가 편지인 줄 알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들 얼굴을 보는 마음으로 아들이 보내온 수표를 방 벽에 붙이고 보고 또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과장된 면이 있을는지 모르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꼭 막힌 시대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나는 자

에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는 글을 몰라 수표를 수표로 보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편지로 이해 한 것처럼 그냥 대충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을 하여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독서를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각종 지식의 전달 체계를 심분 활용하여 지식을 쌓아 지식의 눈을 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식의 눈을 넘어 상상력의 눈을 열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상상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여 창조적인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오래전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무서운 정도의 초과학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꼭 막힌 시대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나는 자

차를 상상하며 생각하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였습니다. 상상의 눈을 열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설교로 평가를 받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는 목사입니다. 지금 저의 기도는 “주님! 저의 눈을 열어 말씀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교우들의 영적,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인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 나름대로 진실한 그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하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저들이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들 세계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그것들이 모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와 가능성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세계가 펼쳐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안을 맑게 하여 현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맑게 하여 영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전개 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미리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멀리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줄 아는 밝은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됨으로 우리들의 눈이 열려 지기를 소원합니다.

cyd777@hotmail.com

2023학년도 봄학기 남가주 기독교대학 학위수여식

2023학년도 봄학기 남가주 기독교대학 학위수여식이 5월4일 뱅가드대학교(총장 마이클 빌스 박사)를 시작으로 6월16일 베데스다대학교(총장 김판호 박사)까지 일제히 갖는다. 다음은 남가주 지역 기독교대학 학위수여식 일정이다.

Table with 3 columns: 날짜, 학교, 총장. Lists graduation dates and locations for various Christian universities in the South Coast region.



백승철 목사

제27회 에피포도문학상 공모 5월31일 마감...수상작품은 책으로 출간돼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에서 제정해 온 제27회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 공모가 진행 중이다. 작품공모는 문학전부문 시(5편 이상), 수필(3편), 단편소설(1편), 평론(1편), 아동문학(1편), 희곡(1편)으로 문학상(등단 또는 출판경력 작

을 공모한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은 1995년 10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기독교종향예술단체이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은 예술 전반을 통해 복음 선교와 그리스도인 예술 확산 방법으로 열린 예술, 넓은 예술을 지향하며 에피포도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예술과 문학상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에피포도는 헬라어로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의 뜻이다(빌 1:8).

마감은 5월 31일이며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수상자 발표는 6월 초순, 수상작품은 책으로 엮여지며 출판기념회와 시상식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것은 www.epipodo.com에서 볼 수 있으며 문의는 (714)907-7430. 이메일 usaep@hanmail.net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센터메디컬그룹이 2023년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생'을 선발한다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생' 선발

2023대학 신입생...1인당 \$500 혜택자 크게 늘려

센터메디컬그룹이 2023년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자격은 2023년 고

교를 졸업하고 새 학기에 대학

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다. 지원자들은 센터 IPA 파운데이션 웹사이트, foundation.centeripa.com에 들어가 아래 링크(http://foundation.centeripa.com/Home/About)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은 1인당 \$500이다. 접수 마감은 5월31일 자정(서부 시간)까지이다. 2015년 창립해 그 첫 사업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센터메디컬그룹은 2018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6월15일(목) 오전 11시 세라톤 세리토스 호텔(12725 Center Ct Dr S,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센터메디컬그룹으로 자세한 문의를 하면 된다. 문의 전화: (714)980-3532

(기사제공: 센터메디컬그룹)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담임 목사 보직해임

동성에 이슈와 관련해 전국적인 연합감리교단 탈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최초의 한인교회인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담임목사가 지난 4월 23일(주일) 보직 해임되었다.

100년 역사를 가진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지난 4월 18일 연합감리교단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닷새 후인 23일 주일 오전 연합감리교단의 북일리노이연회 레이 노스 지방회의 브리태니 아이삭 지방감리사는 교회를 방문하여 김광태 담임목사를 5월 1일부로 보

직해임한다고 교인들 앞에서 전격 통보했다. 감리사는 김 목사는 앞으로 2달 간의 안식을 가진 뒤 타교회로 파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회창립 100주년을 맞은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에 김광태 목사는 2004년에 부임하여 18년째 목회해 왔다. 한편 개교

회의 교단 탈퇴 결의 직후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측의 전격적인 보직 해임으로 인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김광태 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지역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and 가격 (\$100, \$130, \$240). Includes a section for subscription type (individual or gift).

Form fields for subscriber name in Korean and English, and address.

Form fields for phone numb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m fields for recipient name and address for gift subscriptions.

Form fields for church/organization name.

Form fields for email and subscription date.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제6회 목회자 컨퍼런스 공동 개최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AYC(The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는 제 6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뉴욕가정상담소와 공동으로 5월 8일 오전 11시 뉴욕교협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한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카톨릭, JMS 등의 사례에 비해 종교/ 청소년 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그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및, 인종혐오, 가정 폭력 등에 대해, 대처 방안 및 예방책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718-279-1313, admin@aycny.org

Midwest University 설립 37주년 기념 Global Leadership Seminar 개최

세계지도자 발굴 및 양성과 세계선교를 위해 1986년에 설립한 Midwest University(Dr. James Song, Founder/President)는 개교 37주년을 맞이하여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Global Leadership Seminar, 학위수여식,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홈페이지: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usa@midwest.edu

설교 글쓰기 세미나, 창의적인 글쓰기

세미나는 뉴욕생명열매교회(담임 김경태 목사) 주최로 5월 15일(월)~16일(화)까지 뉴욕하늘소망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고 있는 전문 사역자 김도인 목사(아트설교 연구원 대표)와 이재영 목사(아트설교 연구원 부대표)이다. 세미나 참석은 장소 관계상 선착순 30명이며, 5월 12일(금) 선착순 접수를 마감한다. 참가비: \$50 (교재 및 식비 포함) 주소: 뉴욕하늘소망교회 34-09 Murray St. Flushing, NY 11354

▲문의: 김경태 목사 201-948-8399, skyhelp55@gmail.com

뉴저지벤엘장로교회 2023 Summer School 여름학교

뉴저지벤엘장로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7월5일(수)부터 8월11(금)까지 6주간 여름학교가 진행된다. 대상은 가을학기에 K1-K8인 학생들이며 경험이 풍부한 staff들과 교사들이 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뉴저지 주 학습 기준에 맞춰 학생들과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고 예배할 예정이다. 등록기간은 5월 1일(월)부터 6월 5일(월)까지이다. 웹사이트: http://ss.njbc.org

▲문의: 856-866-9911, 609-509-9968, 2023.summer.bpc@gmail.com

뉴욕밀알선교단, 설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연례 만찬

30년 전 심은 복음의 씨앗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송)은 뉴욕밀알선교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4월 29일(토) 저녁 6시 퀸즈 아드리야호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30주년 기념예배 및 연례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밀알선교단 봉사자로 섬겨오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한희준 형제의 사회로 시작되어 뉴욕밀알선교단 선교 목사인 정선희 목사의 환영사, 심상현 목사(뉴욕IN2교회 담임)의 기도,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심긴 후에는(마가복음 4:30-32)”이라는 주제로 “30년 전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신 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심었던 밀알선교사역이 이렇게 잘 자라왔다. 뉴욕밀알선교단에는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복음을 심을 때는 힘들어도, 심고 나면 그 열매는 아름답다.

뉴욕밀알선교단 3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며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찬양 사역자 엘렌 타르 자매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를 찬양했으며 뉴저지 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와 시각장애인 재무 분석가 신순규 집사의 축하 메시지, 뉴욕밀알선교단 장애 교우들의 바다위십과 찬양, 봉사자 남궁범, 라이언즈 클럽 리넷 연주, 30주년 기념 특집 영상을 시청했다. 또한, 밀알선교단 장애 교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뉴욕밀알선교단이 설립된 후 30년 동안 장애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겨온 사역의 많은 열매들에 대하여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뉴욕밀알선교단 사역자 오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밀알선교단 장애 교우들의 바다위십 찬양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 총회장 오정길 목사

“복음을 전하고 보이는 총회” 를 주제로 열려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가 “복음을 전하고 보이는 총회(이사야 20:2-3)”라는 주제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볼루벨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일일선출을 통해 총회장 오정길 목사(뉴욕동부노회, 한사랑교회), 부총회장 장명석 목사(해외노회), 장로 부총회장 박

영근 장로(뉴욕동부노회, 블루벨한인장로교회), 서기 강신익 목사, 부서기 지윤성 목사, 회의록서기 박민재 목사, 부회의록서기 장동익 목사, 회계 이종희 목사, 부회계 윤석재 목사, 총무 이광열 목사, 부총무 정대영 목사, 해외총무 김명구 목사 등을 선출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 선교사의 집 감사예배 후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 선교사의 집 리오픈 감사예배

“헌신된 주의 종이 유숙할 수 있는 곳”

뉴욕선교사의 집(대표 백달영 장로) 리오픈 감사예배가 4월30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2007년에 개관되어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위로와 안식, 힐링의 장소로 제공되었던 뉴욕 선교사의 집이 재정난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5월1일부터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 2층에 5개의 방으로 구성된 10명의 선교사와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선교사의 집을 마련하고 리오픈하게 됐다.

백달영 장로 인도로 시작한 감사예배는 대표기도 순환권 목사(예사랑교회), 성경봉독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 찬양관 목사(뉴욕만나교회), 찬양 연주 정인국 장로(선의선교회 이사장) 부부, 한금기도 성호영 목사(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설교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섬김의 축복(왕하 4:8-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 귀한 여인으로 기록된 수넵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며 남편에게 인정 받는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

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이단이

많은 이때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들을 잘 분별하여 주의 종들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축복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중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는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새로워진 뉴욕선교사의 집과 뉴저지 선교사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최문선 장로(선의선교회 회장)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라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정말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격려였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60년 70년대 파송되어 돌아온 은퇴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기에 장기로 머물 수 있는 선교사의 집을 구상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박마이클 목사의 축도, 정관호 장로(선의선교회 총무) 광고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예약은 917-599-36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제4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 했다



뉴욕가정상담소, 34주년 기금모금 연례만찬

뉴욕가정상담소 (이사장 임에스더, 소장 이지혜) 기금모금 연례만찬이 “Rise Above The Violence(폭력위에 우뚝 서라)”라는 테마로 4월28일(금) 6시 Cipriani 42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직접 스테이지에 올라서 자신이 뉴욕가정상담소를 통해 “Rise Above The Violence(폭력위에 우뚝 서

라)” 한 경험과 감사를 나누면서 참석한 내빈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연례만찬으로 모여진 기금은 가정상담소의 연간 운영비 15~20% 정도를 차지해 연간 2,500 명의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기사제공 : 뉴욕가정상담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미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nyk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권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6시 Tel: (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Tel: (516)387-9940, 9942(EV),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매일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c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뻐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yphchurch.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전 2:00 주일학교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견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229-2858, www.nybaysidechurch.org/V2/ 45-62 2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 주일 3부 오후 3:20 청년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m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945) 359-1458, http://www.eu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q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 금, 토) 오전 8:30(토) 금요일기도: 매일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일특별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laza, 261 Cambuci S.Paulo Ca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L 1R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6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변신 신학교 교수 2. 9마사주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607-4111, haninro@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2023년도 미주한인교회 각 교단 상반기 총회

2023년도 미주한인교회 각 교단 상반기 총회가 지난 4월18일 교회총회까지 일제히 개최된다. 다음은 총회일정이다.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를 시작으로 6월13일 남침례회한인

△ 4/18-20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	장소: <GA> 주님의영광교회
△4/24-26	하나님의성회한국총회	장소: <NJ>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4/24-27	KUMC	장소: <NJ> 뉴저지연합교회
△4/26	C&MA	장소: <SC> 찰스턴진리의교회
△4/25-28	예장미주합동총회	장소: <PA>블루벨한인장로교회
△5/16-18	KPCA	장소: <CA> 남가주동신교회 (310)502-8541
△5/16-19	미주성결교회	장소: <한국> 신길교회
△5/23-26	NCKPC	장소: <WA> 시애틀형제교회 (425) 488-1004
△5/23-26	KAPC	장소: <NY> LaGuardia Hilton Hotel (917)353-5477
△6/12-16	PCA	장소: <TN> Renasant Convention Center of Memphis (832)264-9566
△6/13-16	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장소: <NC> Ridgecrest Conference Center (972)221-8026

<박준호 기자>



고 박희민 목사

미주한인교계의 큰 별 박희민 목사 소천

“다른 사람들 섬기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 보여”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 새생명선교회 대표, KCMUSA 이사장)가 지난 4월 26일 오전 3시 향년 86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전립선암 재발로 고생하던 고 박희민 목사는 암이 전이돼 투병 생활하던 중 LA 인근 라크라센터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아들 피터 박 장로는 “아버지는 어젯밤 새벽 3시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아버지는 그가 살았던 아름답고 축복받은 삶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멋진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1936년 충남 예산에서 교육자 집안의 4남2녀 중 4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김천고등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 사학과를 수석 졸업했다. 1968년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2년 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자 미국 유학길에 올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토론토대학 독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학에서 메릴 펠로우 연구생활을 했다. 2013년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피퍼대학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988년 나성영락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한 박 목사는 지난 16년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도 했다. 박 목사는 사회적으로도 한류기독교연맹 공동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 미주대표, 4·29 장학재단 이사장, 풀러신학교 이사 등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사회 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의 대표를 맡아 공헌해 왔다. 은퇴 후에는 새생명선교회를 설립해 중국, 과테말라, 동티모르, 몽골 등의 국가에서 교회 설립을 지원했고 필리핀, 루마니아 등 5개 국가에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년 봄 재미한인기독교재단(KCMUSA)에서 출간한 ‘미주한인교회사’는 박희민 목사가 발행인으로서 마치



제자훈련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국제제자훈련원 주최 제자훈련세미나 열려

미주국제제자훈련원 주최 제자훈련세미나가 4월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노창수 목사는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칼세미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과 참석자들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박동식 교수(미주장신대)는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와 교회를 모

르고 목사는 신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간극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고민하게 되었다”라며 “교회를 돕는 신학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칼세미나에 등록하여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와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주강사로 나서 열면 강의를 인도했다. 강의는 온전론, 교회론, 이민교회와 제자훈련, 제자도, 제자훈련의 한 사람 철학, 제자훈련의 시작과 운영, 제자훈련의 열매와 다락방 체계, 제자훈련과 교회성장, 제자훈련의 접목과정과 실행지침, 제자훈련과 패러다임 전환, 제자훈련과 리더십 등 주제강의와 소그룹 환경과 성격, 소그룹과 리더십, 귀납적 개인 성경연구, 귀납적 성경연구 실제, 교재가이드, 제자훈련을 위한 사전준비, 제자훈련 시간운영 실제 등 소그룹 강의, 그리고 효과적인 새신자 정착 등 선택강의로 진행됐다. 또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운영중인 순장반, 제자훈련반, 다락방 실습 등을 참관하였으며 참관이 끝난 후 시간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평가서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제자훈련세미나를 이론적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열렸다. (박준호 기자)



시전 이인미 시인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입술의 성화 두 권의 출판감사예배가 마련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전 이인미 시인 출판감사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 쓰고파”

시전 이인미 시인의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입술의 성화> 두 권의 출판감사예배가 4월29일(토) 오후 4시 옥스포드팔레스호텔 카페 ‘캘리’에서 열렸다. 이인미 시인은 “출판감사예배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언어를 주신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인미 시인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식지 않았는데 14년 전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의 권면으로 성경을 붙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시인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연구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어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사역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를 더 쓰고 싶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열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한나 동인 사회로 시작된 출판감사예배는 정종원 목사(

아이엠교회 담임)와 찬양팀이 찬양인도했으며 김영숙 시인이 기도했다. 이어 백승철 목사(에피포도예술인협회)가 ‘이 시대를 향한 시전의 역할(엡 5:16-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윤일홍 시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책출판에 대하여, 이현수 목사가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책출판에 대하여 축사를 겸한 격려사를 했다. 이어 열린 시로드리는 예배는 김선아 동인이 ‘예수’, 이애미 시인이 ‘차차꽃연가’, 윤일홍 시인이 ‘신의 장엄’, 이지영 사모가 ‘자카란다 피는 계절’, 최명희 시인이 ‘초승달’, 김은집 시인이 ‘임재’, 강혜옥 권사가 ‘일새의 기도’, 김영숙 시인이 ‘이런 이웃’, 정명선 사모가 ‘어느 가난한 날’, 정한나 동인이 ‘로즈힐에서’, 허윤아 동인이 ‘이슬 먼 류관’을 낭송했다. 흥매리 사모(우먼 투 우먼 대표)가 특송했으며 시전 동인이 중창했다. 이어 이인미 시인이 감사인사와 올리브나무를 낭송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정우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8회 사랑의 마당축제’
제38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Thanks-giving’이란 주제로 20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랑의 마당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고, 장애 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들로 진행된다.
▲ 문의: (562)229-0001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
재미한인선교재단(KCMUSA 이사장 민종기 목사)이 주최하는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가 9일(화) 오전 11시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
▲ 문의: (213)365-9188

은혜한인교회 창립41주년 기념 감사음악예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41주년 기념 감사음악예배가 5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 문의: (714)446-6200

월드미션대 32회 학생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32회 학생음악회가 12일(금) 오후 7시30분 콜번스쿨 지퍼홀에서 열린다.
▲ 문의: (213) 388-1000, (213)385-2322

부에나파크교회 유기성 목사 초청 목회자세미나
부에나파크교회(담임 김성남 목사)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초청 LA목회자세미나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22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갖는다.
▲ 문의: (714)484-1190

3040 성경적인 자녀교육세미나
텐버제자교회(담임 박영기 목사)는 ‘성경적인 성정체성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3040 성경적인 자녀교육세미나를 7일(주일) 오후 4시부터 5시30분(온라인, 구글미트(Google Meet))으로 갖는다. 강사는 김지연 교수(영남신대/미주장신 신학대학원 겸임교수)이다.
▲ 문의: (303)300-9517

휴스턴사랑의교회 제4대 정상준 담임목사
휴스턴사랑의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정상준 목사가 7일(주일)부터 주일사역을 시작한다.
▲ 문의: (713)849-3080

휴스턴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 초청 부흥성회
휴스턴순복음교회(담임 홍형선 목사) 안호성 목사(온양순복음교회) 초청 부흥성회가 5일(금)부터 7일(주일)까지 갖는다. 일정은 5일(금)과 6일(토) 오후 7시30분, 7일(주일) 오후 3시30분
▲ 문의: (713)468 2123



2023년 한국가곡의 향연이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2023년 한국가곡의 향연

“고향의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로 평안함 안겨줘”

보나무직(대표 이해자)이 주최한 2023년 한국가곡의 향연이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주제로 4월29일(토)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해자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

에 여는 음악회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하였다”라며 “그리운 고향의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한국가곡을 통해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양두석, 마리톤 권상욱, 크리스 방, 소프라노 클라라 리, 이영주, 메조소프라노 조지영이 무대에 올라 ‘나의 노래’, ‘향수’, ‘가고파’, ‘엄’, ‘그리운 금강산’ 등을 불렀으며 LA채리티콰이어(단장 어연이, 지휘 로이 장, 반주 김주영)가 출연해 ‘마중’, ‘첫사랑’,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다. 이날 관객과 함께 부르는 고향의 노래 코너가 마련이 되어 ‘남촌’과 ‘고향의 봄’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지구촌 한인선교사 200여명 "열방을 품자"

제2회 세계선교사중보기도회 성료

전 세계 50개국에 흩어져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해온 200여 한인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 한 자리에 모여 세계 열방 전도와 선교지 부흥을 위해 뜨겁게 합심 기도했다.

26일부터 나흘간 청주 상당교회(안광복 목사)에서 제2회 세계선교사중보기도회(KWMI)가 열렸다. 첫날 개회예배 후 축사에 나선 선교사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더 끈끈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시작을 알렸다. 오후에는 CCM계 '세시봉'으로 알려진 장욱조, 노문환, 김석균 목사의 찬양 힐링콘서트가 진행됐다. 저녁집회 때는 임현수 목사(선

교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 선교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케 하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종들"이라고 축복하고 늘 '지금 새 생명을 낳고 있는' 열매있는 사역들이 돼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둘째 날에는 허창범(푸른솔교회 웨신 증경총회장), 이찬용(부천 성만교회), 박한수 목사(제자 광성교회)가 특강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므로 이 땅에 주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독려했다. 오후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륙별 전략모임과 소위원회 모임을 갖고 선교지의 현실과 선교전략 등

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저녁집회 강사로 나선 박호중 목사(더크로스처치)는 기도모임과 은사를 강조했다.

셋째 날 청남대를 방문한 선교사들은 포근해진 날씨 속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상당교회 체육관에서 친목을 도모하며 함께 땀 흘리는 '미나운동회'가 열렸다. 저녁집회 때에는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코로나 종식 국면에 이번 대회가 대면 모임으로 열린 데에는 새로운 대면시대 선교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카이로스적인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고, 이 선교역사에 우리 모두가 붙들릴 수 있을 것을 촉구하며 뜨겁게 기도를 인도했다.

대회기간 매일 새벽과 저녁 집회마다 필리핀 선교사 찬양단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고 매일 '7분 선교간증'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현장의 역동적인 선교역사를 살펴보는 이색적인 순서들도 있었다. 파송 예배를 인도한 명예대회장 안광복 목사는 앞으로 KWMI 선교모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므로 대회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온라인→오프라인' 학원선교단체, 본격 여름 사역 시동

CCC·브리지임팩트사역원 연달아 여름 사역 앞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청년·청소년 사역이 올여름을 기점으로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진행하던 수련회가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각 단체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수련회 안내 공지를 띄우고 준비와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기독교학생회(IVF·대표 정재식 목사)는 15

년 만에 전국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닷새간 '원(ONE)23'을 주제로 충남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수련회인 만큼 주최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 감독을 맡은 김혁수 목사는 "코로나19로 급변한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필요했다"며 수련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다음 달 26일부터 닷새간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2023 CCC 전국 대학생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CCC는 수련회 전까지 기도카드를 배포해 청년들이 함께 기도도 캠프를 준비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다음세대 전문 사역기관인 브리지임팩트사역원(대표 정평진 목사)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캠프는 오는 7월 31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사흘간 'Creation:창조(창 1:1)'를 주제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강의는 물론 '빔스페셜 게임'과 저녁 집회인 '빔워십', 유명 CCM 사역자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평진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때문에'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순복음 취업·창업 박람회' 성황

여의도순복음교회 6회째 열려, 구인기업 46곳·9개 기관 등 참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청년 실업과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일 서울 여의도 교회 앞 베다니홀에서 '순복음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순복음 취업·창업 박람회는 2014년부터 진행해 온 행사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사단법인 순복음선교연합회(회장 정중시 장로)가 주관하고 구로구청 은평구청 영등포구청 등 서울시 자치구와 국민일보 극동방송 CTS 굿티비 FGTV 등이 후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따르면 이날 박람회에는 신원그룹, 이랜드 이즈, 케이에스넷플러스(

뽕겨요), 시원스쿨, 죽이야기,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등 구인기업 46곳과 9개 기관이 참여했다. 17개 기업의 창업관과 4개의 관계기관 부스도 마련됐다. 특히 청년 중심의 구인은 물론 50, 60대 장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한 부스도 차려졌다. 구직에 나선 이들을 위해 이력서 작성, 즉석 사진 인화, 메이크업, 컬러 이미지 상담 등도 지원했다. 1100여명이 박람회를 찾았고 365명이 면접 및 창업상담을 받았다.

정중시 장로는 "순복음선교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76년 창립돼 지난 40여년간 고(故)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과 더불어 전심전력으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사역해 왔다"며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관하신 이번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분들과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기업 모두에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청년들 아침 굶지 마세요' 신학대도 '천원의 아침밥'

서울신대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2회 조식 1000원에 제공

2일 오전 8시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총장 황덕형) 학생식당은 아침을 먹으려 온 학생들의 줄이 이어졌다. 아침 식사 가격은 단돈 1000원. 서울신대는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학생 100명에게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고물가에 밤 한 끼도 부담스러운 청년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이 신학대에도 확대된 것이

다. 주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과 아침 1교시 수업을 들으려 온 학생들이 식당을 찾아왔다. 이날 메뉴는 연탄불고기김밥. 조식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침밥을 받아온 조용희(33) 학생은 "요즘은 가장 싼 식당도 7000~8000원 정도 한 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며 "단돈 1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돼 시간과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환희(25) 학생도 "아침을 자주 거르는데 학교가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일부러 일찍 일어나 나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대는 2016~2019년에 1000원 조식을 제공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나머지 식대를 학교가 부담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단됐다. 서울신대는 과거 경험을 살려 이번 '천원의 아침밥'을 준비했다. 김진현 학생처 과장은 "아침 일찍 식당까지 오는 게 부담스러워 아침을 굶는 여학생들을 위해 조식을 도시락 형태로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뻐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대는 1학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천원의 아침밥'을 진행한 뒤 2학기에 다시 이어간다. 3일에는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황덕형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으로 학생들의 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다행이다. 학생들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혁명 막아설 '거룩한방파제' 전국국토순례단 출정

31일까지 전국 10개 지역 돌며 차금법·퀴어축제 등 문제점 알릴 예정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입법 시도 등 각종 성혁명 시류에 맞설 일명 '거룩한 방파제'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대회장 오정호 목사) 준비위원회는 1일 부산에서 출발해 5일 울산, 10일 대구, 17일 대전, 26일 수원 등 9개 지역을 거쳐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앞까지 행진한다. 지역별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간 릴레이 국토 순례에 동참할 이들도 모이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측은 이날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572km를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차금법, 국가인권기

거룩한방파제 측은 이날 출정식에서 성명을 내고 "2000년부터 시작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가 대학로, 종로공원 등을 거쳐 2015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등 서울의 중심에서 음란행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서울 시민은 큰 고통을 받아 왔다"며 지난해 7월 16일 또다시 서울광장에서 1만3000여명이 참여한 퀴어축제가 열렸고, 여전히 음란성이 행사장 곳곳에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퀴어축제를 주관했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룩한방파제 측은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같은 성혁명 시류에 맞서고 오는 7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전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며, 전국시민단체연합회 소속 84개 단체와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주관한다.

정치·생명윤리... 청년들, 성경적 가치관 회복에 나서

기독교청년단체 '오리진 스콜라', 말씀 점검·행동하는 크리스천 다짐

기독교청년들이 정치 교육 생명 윤리 여성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5개 기독교청년 단체의 연합체인 기독교청년아카데미 오리진 스콜라(Origin Schola·공동대표 최다솔 양종석)는 29일 제1회 네트워킹 파티 '문샷(Moonshot)'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사역에 시동을 걸었다. 최다솔 오리진 스콜라 공동대표는 "기독교청년이 각 영역에서 전문성과 영성을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되 마음을 모았다"며 "행사명인 문샷은 달 탐사선의 최초 발사를 뜻하며 새로운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진 스콜라 는 2020년 이후 정치 등의 영역에서 활동한 '돔(D.O.M)' '바른 교육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슈브' '올라아카데미' 등 5개 기독교청년 단체가 지난 2월 연합해 조직했다.

서 서열에 따라 행해지는 괴롭힘) 등에 스며들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와 지혜로 무장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피종진 목사 5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3(수)	서울 은혜제일교회 (김종문 목사) 010-4071-3112
2(화) 오전	Miracles 국제선교센터 (새벽별교회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3(수) 오전·후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4(목) 오후	서울 송파한미음교회 (최원철 목사) 010-3496-3686
4(목) 저녁	오리진 최자실 기념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Good TV 부흥협의회
8(월) 오후	인천 기쁨의교회 (이중선 목사) 010-2212-9191
10(수)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종삼) 점심 롯데 콘서트홀 음악회
11(목) 오후	서울 삼각산 감람기도원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1(목)~13(토)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유재민 목사) 010-6352-0691

제 230차 해외성회 (230th Overseas Assembly)

15(월)~16(화)	필리핀 (Philippines) 갈라시 천양교회 (하용철 목사)
17(수)~18(목)	필리핀 (Philippines) 갈라시 원주민 및 목회자 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 목사)

19(금) 오전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1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21(주) 오후	서울 한미음교회 (최원철 목사) 010-3224-2345
22(월) 저녁	서울 에바다교회 (정근자 목사) 010-3403-9190
23(화) 저녁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4(수)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5(목)~26(금)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타슈켄트 주회: 서울대학교 ABKI 사무국
27(토)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사마르칸트
28(주)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부하라
29(월)	귀국 (오전)

31(수) 송추 반석기도원 (원장 고관능 목사) 010-2391-3004
주관: 작은자세선교교회 (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가동) Fax. 02)401-7770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가족 가방과 선교사 돌봄

MZ 세대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다. MZ세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절반 가까이 46.6%가 가심비를 꼽고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아웃을 28.7%, 응원을 위한 구매 활동을 10.3%, 자랑하고 과시하는 목적 소비를 뜻하는 플렉스는 7.9%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비 성능의 비율을 표시하는 가심비에서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표하는 가심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MZ 세대에 국한하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전 시니어선교사 몇 명이 만남을 가졌다. 마침 한 곳에서 모임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다. 그날은 어느 장로님 부부가 특별히 접대를 해주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고 휴전선이 보이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강 건너 북한 땅을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들은 평화적 북음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장로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멋있는 카페인데 그곳에는 장로님의 공장에서 나온 가족가방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장로님은 아내 선교사들에게 여기 전시된 제품 가운데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씩 고르라고 하셨다. 아내들은 눈을 동글게 뜨고 신기한 듯 이리저리 전시품들을 보고나서 하나씩 골랐다. 나는 여성선교사들이 기쁘게 감격하며 고르고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여성선교사들은 자신을 위해

서 비싼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았다. 현지에 살며 제법 값이 나가는 것들도 아깝지 않게 나누고,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따뜻한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감동이었다. 선교사를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 생각하게 하였다.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선교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된 선물을 받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참으로 특별한 것이 된다.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좋은 뜻에서 선교사를 기억하고 물건을 나누는 것 자체만해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고마운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향을 미치지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안녕과 보살핌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선교사에게 제공되는 의도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인 '선교사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선교사 돌봄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점점 새로운 선

장벽에 부딪히고, 낮은 환경에서 위험에 직면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스트레스와 탈진을 겪고, 슬픔과 상실을 겪을 수 있다. 선교사 돌봄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녕, 정서적 회복력, 영적 영양 공급 등 전인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정서적 지원, 휴식과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관계 강화: 선교사들은 종종 가족, 친구, 지원 시스템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 이는 관계에 부담을 주고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교사 돌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가족 방문 기회를 제공하며, 동료 선교사들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강화는 선교사의 웰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봉

의 훈련과 가용할 무기가 필요하듯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정서적, 영적 지원: 선교사역은 정서적, 영적으로 힘든 일이다. 선교사는 낮은 문화를 탐색하고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의심과 신앙의 어려움, 영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선교사 돌봄은 정기적인 목회 돌봄, 멘토링,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한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고민, 의심, 두려움을 나누고 경험 많은 멘토와 상담사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공동체적인 접근이 중요한 부분이다.

번아웃 예방 및 회복력 증진: 선교사역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선교사들은 번아웃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 선교사 돌봄은 소진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휴식과 안식년의 기회 제공, 자기 관리 실천 장려,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번아웃의 징후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복귀 후 전환 및 재통합: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은 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선교사 케어에는 현장 복귀 후 전환 및 재통합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디브리핑 세션, 재진입 훈련, 지속적인 정서적, 영적 지원이 포함된다. 선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고,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고, 재통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 것은 선교사의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고 선교 후 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선교사선물, 가심비에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더 좋은 돌봄”

선교사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끝까지 나눔으로 인해 자신이 쉽게 지치게 된다. 평생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선물을 받는 것은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싸구려 같지 않을 때에 자신이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더욱 가지게 된다. 자주 선교사들이 받는 선물은 종교이거나 값싼 물품일 경우가 많다. 아마도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고 믿게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교사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선교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유구마저 없을 것이라고

고 여겨서 가심비가 좋은 물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값으로 쉽게 매길 수 없는 감성적인 가치는 간과하게 된다. 담임목회자에게 선물하는 심정지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참으로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심비에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더 좋은 돌봄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과 희망,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현대의 작은 영웅들이다. 선교사들은 가족, 안락한 환경,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낮은 땅에서, 종종 어렵고 외진 곳에서 봉사한다. 이타적인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

교사가 나오기 어려운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일할 만한 선교사들이 중도 탈락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순히 선교사를 현지에 파송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선교사가 효과적으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건강,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은 선교사 돌봄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주요 측면을 살펴본다. 전인적 돌봄: 선교사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다. 언어와 문화적

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호화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훈련과 장비: 선교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전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다. 선교사 돌봄에는 선교사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언어 훈련, 문화 오리엔테이션, 보안 및 위험 관리,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포함된다. 선교사에게 올바른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하면 선교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안전과 복지도 증진된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최상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26강(신명기 1-9장) 모세의 1차 설교를 중심으로 (3)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힘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여러 민족 중에 흠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4:35,39)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환난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입니다(신 4:29,30).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큰 이적을 행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신 4:31-3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을 지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신 4:40).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 최고의 계명(마 22:36-40)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 다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하시고(신 6:6)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7-9)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이며 '헌신'입니다. 허공을 향해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건 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무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신 6:10,11).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신 6:12-14)고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신 6:15).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신 6:17-19). 그리고 아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신 6:20)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

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신 6:24,25)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거든 그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신 7:2,16,23). 만일 그렇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울무'가 될 것입니다(신 7:16,25).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절대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됩니다. 가나안인 배우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신 7:3,4). 오직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제단과 우상을 깨고 찍고 불살라야 합니다(신 7:5).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로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으로 중 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되었습니다(신 7:6-8).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번성하고 풍성하고 번식하고 복되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신 7:9-15, 8:1).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동행한다면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신 7:17,18).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신 7:21).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신 7:19).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롬5:1) 찬 473장

앞에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로 나갑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첫째, 먼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신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뿐입니다. 셋째, 그를 통해서만 죄인은 의인이 되며 실질적 의에 이르러 의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며 목표입니다.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의의 화복을 누립니다.

화 신자의 즐거움 (롬5:2-5) 찬 453장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소요리문답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도는 왜 즐거워합니까? 첫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아무 자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엡 2:8-9)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하고, 그 영광을 본 자는 은혜와 진리의 실

상을 알기에 자신을 거기에 아낌없이 던집니다. (요 1:14)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이 우리의 최대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5) 바울은 그 사랑을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부패한 인생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참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수 산 소망 (롬5:3-5) 찬 167장

복음 안에서 발견된 바울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지만 성경은 모든 고난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롬 3:28) 둘째, 인내를 배우는 소망입니다. 불신앙은 고난을 통한 원망, 불평 그리고 좌절로 마쳐지만, 신자는 고난의 때에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

지 시련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그 고난이 마침내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약 1:1-2) 셋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마침내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이 산소망으로 승리합니다.

목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롬5:6-8) 찬 416장

사람의 사랑은 물거품같이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한 사랑입니다. (6,8) 둘째, 성부의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6) 셋째, 성자의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7-8) 성부뿐 아니라 성자 역시 자원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는 성자의 기도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증거합니다.

금 바울이 본 구원 (롬5:9-11) 찬 500장

사도가 반복해서 증거한 복음은 놀라운 내용을 가졌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요약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불의를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하신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이 의를 얻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둘째, 그의 죽음 역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유일한 발판입니다. 의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 영생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의 부활로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죄사함의 근거라면 부활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발판이 됩니다. 이 풍성한 구원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롬5:12-14) 찬 102장

자신의 고안에서 나오지 않은 창세 전의 숨겨진 비밀은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 설명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나타난 구원을 말한 바울은 지금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첫째, 첫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된 것은 아담이 대표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2) 둘째,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

인됨을 더 밝혔습니다. (13) 셋째,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아담의 후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 되어 사망 아래 놓인 것이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힘써 찬양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33)



윤임상 교수
(월미션대학교대학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존 스토틀의 신학, 그리고 윌리엄 게이터의 음악

요한 저자가 기록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한 선포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이에 대해 존 스토틀(Rev. John Robert Walmsley Stott, 1921-2011)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활 신학 그리고 윌리엄, 글로리아 게이터(William J. and Gloria Gaither 1936 - , 1942 -)부부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찬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확신과 소망을 더 하게 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설교가요 저자인 존 스토틀 목사님이 저술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The Contemporary Christian)"이란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주장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아직도 믿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이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르침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당시 예루살렘 유대 권력자들이 싫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주장에 제기되는 세 가지 주된 질문에 존 스토틀 목사님은 그것을 제시하고 풀어내셨습니다. 첫째는 의미론적 질문입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살아남아 있는 영향력이 아니요, 소생한 시체가 아니요, 제자들의 체험 속에 되살아난 신앙이 아니요, 단순히 확대된 인격이나 성령에 대한 현재의 체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변화된 인물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똑같은 정체성을 지니신 동일한 인물이었으나 그 부활로 그는 변화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일어났던 일인가? 주님의 부활은 실제 날짜까지 추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사흘 만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죽으셨고, 장사지냈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보였습니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생이나, 잔존이 아닌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적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은 정말 일어났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복음서 기자를 부인하는 사람들마저도 무덤이 비어있다고 인정했

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 도마 등등...) 마지막으로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힘없이 처절하게 죽자 모두 흩어져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한데 결합하여 견고한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학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자신이 이루셨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찬양 중 회중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대표적인 회중 찬송 중 하나는 "살아계신 주(Because He lives)"입니다. 이 찬송은 20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미국 현대 교회 음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윌리엄, 글로리아 게이터 부부가 1971년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곡은 1974년 가스펠 음악 협회와 미국 작곡가 및 출판사 협회(ASCAP)에서 올해의 가스펠 노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윌리엄, 글로리아 부부가 이 곡을 쓰게 된 때는 이들 부부의 세 번째 아이를 세상에 맞이하게 된 때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격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 국가적, 개인적 신뢰의 배반, 암살, 마약 밀매, 전쟁이 헤드라인을 독점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혼돈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이 메마른 사막의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괴로운 마음에 불어온 것은 이러한 종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다"고 윌리엄은 고백합니다.

오늘날은 윌리엄, 글로리아 부부가 이 곡을 썼던 당시 상황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부활과 살 가치가 있는 삶"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제시했던 이 찬양을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권능과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셨고, 그것을 존스토틀 목사님이 펼치는 부활 신학, 그리고 윌리엄, 글로리아가 펼친 부활 찬양을 표현한 것 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존 스토틀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확신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현재를 알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확신함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베트남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31일 베트남 선교 사명을 받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 노이에 온지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 언어와 기후의 장벽을 뛰어 넘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서서히 비추길 시작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와 거리마다 설치된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제단이 있습니다. 매일 이 제단에 가짜 돈을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아!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애야 먼저 저들을 무조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밝은 인사와 미소로 대하고 작은 물질과 선물을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 나누어라 하십니다. 우선 가까운 이웃부터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베트남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정을 맞아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웃집에는 부부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 받고 무척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가끔 보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집 막내딸이 감기가 걸려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배달시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지...

최근에는 영어와 한국어라는 도구로 많은 젊은이들과 교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을 내게 붙여 주셔서 일대일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회화와 한국어 토크 시험을 도와주고 대신 그들은 나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줍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최



대한 살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지요. 함께 교제하는 대학생들이 입소문을 내는 바람에 많은 대학생들이 저와 일대일로 영어와 한국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충성된 자, 성품이 착한 자, 성실한 자를 추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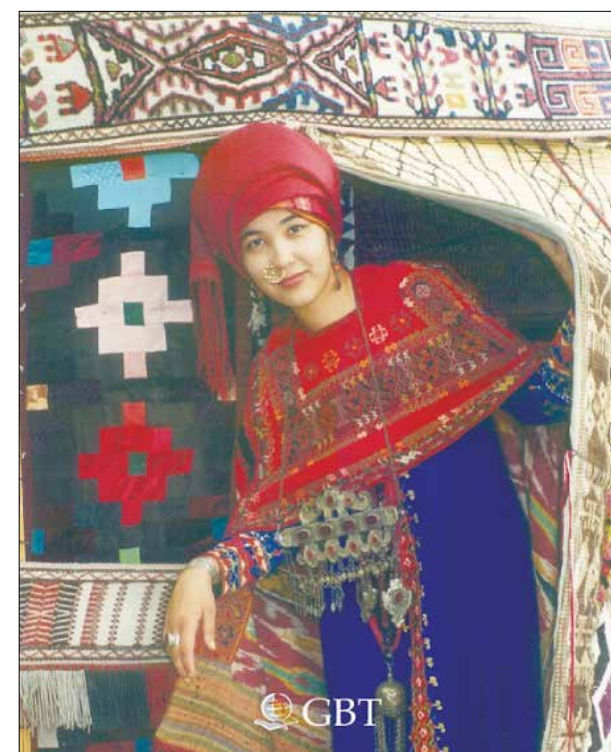
현재 Dat (Andy)이 가장 가까운 후보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며 경제학 재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제법 유창

하고 있습니다. 교제한지 두 달이 되었네요. 특별히 위의 두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베트남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또한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모든 분들의 가정, 자녀, 사업과 직장에 하늘로 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강폴 & 조이스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북유라시아

▲ 종족명
카라 종족

▲ 인구
약 60만명

▲ 종교
이슬람

▲ 기타
자국의 문자와 교육 기관, 신문, 방송이 있음

▲ 프로젝트 소개
카라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1992년 시작되어, 2022년 12월 성경전서가 출판됨으로 마쳤지만, 현재 성경 녹음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경 출판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22년 12월에 출판된 카라어 성경전서는 디지털 포맷과 앱으로 배포되고 있다. 성경책은 중앙정부의 공식 배포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2023년, 성경 녹음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 출판을 위한 작업, 그리고 성경을 카라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도제목

- 1. 출판된 카라어 성경전서의 반입과 배포가 허락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 2. 카라어 성경을 통해 건강한 카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 3. 성경 녹음과 점자 성경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850) 579-7576, Fax: (702) 257-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화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03) 821-112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성경예배: 오후 8:00 Tel: (215) 945-6446,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산정): 오후 1:45 단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유치, 청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세 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 국 국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6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일산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인/터/뷰

WEC국제선교회 양영자 선교사

한국탁구의 전설 양영자 선수...이제는 영혼구원을 위해 뛰는 선수

86 서울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87 세계선수권 여자복식 우승, 88서울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을 비롯 82년과 86년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탁구의 전설 양영자 선수.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탁구선수로 알려져 있는

그가 선교사가 되어 한국과 몽골, 네팔, 캄보디아 등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양영자 선수를 만나 그의 삶과 신앙을 들어 보았다.



양영자 선교사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탁구선수시절부터 했습니다. 지난 86년 중국에 탁구시합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었어요. 당시 저와 한국선수들을 알아본 수많은 중국 팬들이 사인을 받으러 오게 되어 그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그때 탁구를 통한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라고 입을 여는 양 선교사.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라켓을 잡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꿈꾸는 꿈나무 탁구선수였다. 국가대표가 되어 좋은 성적을 내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팔을 쓰는 운동이라 그런지 부상도 당하게 되었어요. 중 3 때부터 생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19살 때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지금이야 선수 관리시스템이 좋아서 부상을 당해도 회복할 때까지 팀에서 관리를 잘해주지만, 당시만 해도 진통제를 맞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시합

전에 진통제를 아픈 팔에 맞으면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상 회복보다는 현재 상태보다 악화되지 않는 정도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말한다.

아픈 팔을 가지고 시합에 나가야 하는 그에게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었다. 탁구국가대표가 꿈이었지만 부상이 그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팔 부상에서 회복이 된 것은 지인의 권면으로 찾았던 기도원에서 목사님의 안수기도였다.

건강을 되찾은 뒤 선수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두 번째 찾아온 고난은 바로 간염이었다. 당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고 밤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탁구의 세계최강국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별명이 난공불락, 만리장성이었으니까요. 그런 강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었는데 무리

를 하면 2-3일은 무조건 쉬어야 할 정도로 간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어요”고 들려준다.

서울올림픽은 탁구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대회라 특별히 여자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했다. 양영자 선수는 병실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올림픽까지 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응답은 88서울올림픽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금메달 획득이었다. 양영자 선교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복식 파트너였던 정화(현정화 선수)와 기도했으며 기적같이 금메달을 딴 후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을 때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올림픽이 마치고 은퇴를 한 뒤 연금과 격려금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소천이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간호를 하며 하나님께 어머니의 회복을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실망감이 무기력증으로 이어져 집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제 무기력증은 조울증과 우울증이었어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인의 권면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결국 큐티훈련을 통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앞기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 옛날 탁구를 통한 복음사역을 해야겠다는 기억이 떠올랐으며 그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처럼 그가 평생 함께 사역을 할 동역자이자 삶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영철 선교사였다. 당시 이영철 선교사는 연합뉴스 번역기자로 취업이 되어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 서울사랑의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당시 사랑의교회

에 출석하던 양영자 선수와 만나 92년 가정을 이루었다. 그 뒤 양 선교사 부부는 1997년 WEC 국제선교회에 가입하여 가족과 함께 몽골로 파송되었으며, 2004년까지 울란바타르와 샌산드에서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 양 선교사는 탁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으며 이 선교사는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했다. 이 선교사는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이 있는데 두 곳의 언어문자가 완전히 달라서 두개의 문자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5년간의 몽골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양영자 선교사는 해마다 해외 단기선교를 떠나고 있다. 선교는 주로 탁

구를 지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10명의 선교팀이 함께 한다고 말했다. 선교지는 네팔, 캄보디아 등이며 2주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양영자 선교사는 “한국에 탁구동호회에 가입된 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들 중 선교에 비전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탁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비전도 내 보았다.

양영자 선교사 연락처는 immongo64@naver.com이다. (박준호 기자)

책소개

박성현 교수(고든콘웰 신학대학원 구약학)

새로 읽는 창세기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보스턴 캠퍼스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구약학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박성현교수가 '새로 읽는 창세기'를 펴냈다.

“이 책의 시작은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성경의 책 한 권을 집중적으로 강의 한 것과 미주크리스천신문에 수록되었던 칼럼들을 토

대로 했다”고 말하는 저자는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성취되기 시작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 그 성취는 성경의 제일 끝자락까지 닿아 있다. 그러기에 창세기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전체의 역사적 프롤로그이며 시내산 언약의 역사적 서문”이라고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본서에는 ‘궁창이 애굽의 신이었다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누구신가?’, ‘힘은 신의 특권인가?’, ‘여자를 건축하셨다고?’, ‘도시를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성경의 족보는 왜 알아야 하는가?’, ‘모세는 디나의 강간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송실대 이사장)는 “믿음의 초석인 창세기를 감동 있게 안내하는 이 책을 이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고대 근동의 거짓된 신과 우상에 젖어 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며 일독을 권했다.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 저자 박성현 교수는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학생 및 목회자들에게 구약을 가르쳤고 이후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와 텔아비브대학에서 비브대학에서 고고학 및 근동문화를 공부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근동어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박성현 교수와 아내 장현경 교수의 공저 '한 달란트'가 있다. 책 구입은 미주 내 각 기

독서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저자 박성현 spark4@gordonconwell.edu (이성자 기자)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